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Table with columns for regions: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Grace &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섬김과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전원성전에서 1박 2일간 열려



주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하여 주시며,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에스더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중고등부의 겨울수련회가 지난 1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1박 2일간 전원성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자(사도행전 2:46,47)는 주제로 열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학생들은 당회장 조 목사님의 특강과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학년 더욱 예배와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기록부 비전과 청소년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제에 따른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날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주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신앙심을 북돋워 주고 함께 예배와 전도에 힘쓰도록 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둘째 날에는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주제로, 조별로 모여 구역예배와 가정예배 형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Large contact table for 은혜와 진리교회 with column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안양, 수원, 안산, 과천, 시흥, 광명, 부평, 부곡, 판교, 영등포, 산본, 인천, 부천 and their respective phone numbers.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2월 1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복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왕로 193 ☎ (031)443-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저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 김점선 -

저는 바닷가의 한 산촌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년기에 선물을 받기 위해 크리스마스 같은 교회의 절기 행사에 두어 번 참석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후배의 전도로 몇 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 전까지 쪽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많은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저를 전도했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어리석고 마음이 강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저도 모르게 제 심령에 뿌려지고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형제 중에 맏이였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며 주어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므로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가정을 이루고 신혼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 안 되어 법원으로부터 노란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가서 집을 비우라는 통고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에 저에게는 퇴거를 하고 전임신고를 마치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얻어 놓고 전입신고를 하는 기간에 집 주인이 저희 몰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임신 초기 이런저런 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유산을 하고 몸이 무척 아프고 힘든 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거듭 집을 비우라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밤새 집주인을 찾는 수사에 진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직접 여기저기 집주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 해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공서나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염려하던 남편이 어디를 다니고 무엇을 믿든 반대하지 않을 테니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저희 상황을 잘 아는 집사님이 더 강하게 권하시고 도와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간부터 저 혼자서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그 때 남편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간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후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섬리해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당시로서는 드물게 법원에서 저희가 전세보증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수원시로 이사를 와서 같은 동네에 사는 권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감동을 받고, 하루하루 저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임신 8개월 때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가 빨랫줄을 매어놓은 골목이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크게 다치고 기절해 있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속의 아이 때문에 마취주사를 맞지 않은 채로 바깥쪽 발목 복숭아뼈의 깨진 부위를 응급조치하고 이어서 큰 병원에 가서 발목 안쪽의 떨어진 복숭아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웃사람들의 염려가 무색하게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이도 무사하고 저 또한 곧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직장, 지역 조합아파트 붐이 일었을 때 저희도 많은 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여기저기서 조합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중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희 조합아파트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격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창 직장, 지역 조합아파트 붐이 일었을 때 저희도 많은 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여기저기서 조합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중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희 조합아파트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격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막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매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직장에 다니느냐고 물을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불신자들을 찾아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앞에서 걷게 하고 작은 아이는 뒤에 얹은 채 교회의 예배와 각종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던 중에, 전도를 하고 시장을 막 나서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그 충만한 기쁨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입을 막고 막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고 강권하자 남편이 변하여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딸, 아들과 남편이 되어서 나를 귀찮게 한다.’ ‘교회는 일요일에만 가도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나하고 교회하고 둘 중에 누가 우선이냐?’는 말까지 하며 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또 전도했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하는 것을 보는 신령한 기쁨 때문에 감내할 수 없었습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다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들켜 핍박을 받을 때도 제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했습니다. 사업하는 분, 직장에 다니는 분 등 구역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구역예배를 중간에 일곱 번 이상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예배가 저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곧 자매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를 따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였습니다. 그 밤에 자매의 남편과 그 남편의 친구들 그리고 택시비를 받지 못한 기사까지 합세하여 자매를 찾느라 집집마다 차레로 초인종을 눌러 저희 아파트에서 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에 사는 수구역장님과 구역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매를 위해 작정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 자매는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여져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처럼 전도에 온 힘을 다하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조합원 아파트 건축이 잘 마무리되었고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없이로다.”(롬 5:3,4) 아멘! 남편의 구원을 위해 딸과 아들과 함께 셋이서 21일 동안 작정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편의 요로결석을 치료해 주시고 남편의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섬리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뭇 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중책을 맡아 인정받으며 즐겁게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편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고 교회와 성도님을 섬기기로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장성한 딸과 아들이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위와 며느리를 보도록 섬리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예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정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시댁과 친정의 식구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 6:11,12)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굳게 새기며 묵상합니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들으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깨어 경성하여 살게 해주신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섬기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 주신 귀한 봉사의 직분들을 항상 착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더 힘껏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교회 조몽욱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4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482장 (새찬송가 364장)

“누가복음 11장 1절~4절 강해 설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으로서 실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과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같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최종적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재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육신에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활 필수품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이 기도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죄 용서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믿음에 타격을 받거나 믿음을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날뛰는 마귀는 환난, 핍박, 유흥으로 신자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환난, 핍박, 유흥에 직면하면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여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신앙에 관련된 용어의 개념은 바르고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추리에 근거한 것이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 용어의 개념은 철두철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잘못된 개념도 막중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합당한 기도를 비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자상하고 심도 깊게 가르치셨습니다.

밤급 살피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관련하여 기도에 대한 왜곡된 개념과 논리를 몇 가지 부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므로 구태어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힘써 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형편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왜 잘못되었으며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므로 구태어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써 설명하면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집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며 일생 동안 변함

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는 자식을 험것 돌보아 주기 마련입니다. 극단적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자식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굶고 험껏 도록 내버려 두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위협에 처했는데 수수방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터이니 구태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논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논리를 지지해주는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 가지만 하던 된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들이 취할 태도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시옵소서.”라는 요구뿐이며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빼고는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곤 지적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에서 “주시옵소서.”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하지만 위의 논리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할 때는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부터는 성숙한 신자답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까. 그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런 자가당착의 기도를 하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므로 구태어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르침은 그것만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하신 말씀은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금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예배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간절히 마음이 없고 단지 기도하기 위한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성령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렘 3:20)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7,8) 자기 의사표현이 부족할 어떤 자식에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지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 자식에게는 일반적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요구하여 받게 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받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통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사 38:1) 하였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실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사 38:3) 하고 크게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나와서 성을 가운데를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왕의 손에서 건지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 38:5,6)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얻은 다음 갈멜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상숭배한 아합왕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식수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이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얼마 후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가뭄이 일시에 해소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약 5:17,18).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은, “성도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힘써 구해야 한다”라는 논리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이루기 원하는 것은 건강과 재물과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회생활에서 더 나은 위치에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잉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옳지 아니한 기도로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욕심 없이 살아야 한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심령이 둔하여지게 된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성경을 발간하며 전도책자를 발간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각종 전도매체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온 천하

에 다니려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눅 6:38) 하였습니다.

주기 전에 먼저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물이 넉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 모든 것이 넉넉해야 합니다. 여기서 넉넉함에 각종 소유물을 말합니다. 자신만이 즐기고 호사하기 위하여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하여 넉넉하기를 바라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교회를 설립해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는 물질만 아니라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어 도왔습니다.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다면 것처럼 꾸준히 바울의 선교활동을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리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7-19)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시민이지만 아직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무엇을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든지 그 목적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며,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고전 10:31, 고후 5:9, 빌 1:20) 여러분이 추구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난 후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직분이 세속적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다면 그 일은 세상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 자체로서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려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끝으로, “자신의 형편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리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이 잘되는 중에 과도한 욕심을 내어 사업 확장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성공 사례는 어디까지나 그만큼 성공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져서 무리를 하다가 결국 쓰디 쓴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건너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리수를 두는 일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향 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면서 한 편으로는 있는 그대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과분합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생에 승리가 되었고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자가 되었고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무슨 일든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는 탐심이 침투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라도 “자신의 형편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리와 주장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지만, 이상과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81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나 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시 81:10-12)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온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일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낙심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하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이상을 높게 가지고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분수에 맞지 않게 일을 크게 떠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든 형편에 맞추어 한 걸음씩 나아가되 이상은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기적적인 도움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둘째, 크게 기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바라던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에게는 극히 미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부유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놀라지 아니하십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도에 관한 왜곡된 논리와 주장들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개념과 정의(定義)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기도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